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환경보건학과	이름	양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오하이오 주 켄트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leveland international 공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이고 Akron과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학교가 순천향대에 비하면 면적이 많이 큽니다.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안전한 학교이며 패션 쪽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동아리도 많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인종이 다양한 편이고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를 포함해 한국인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학교 옆에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도시로 나가려면 콜롬버스나 클리블랜드로 가야합니다. 시골에 속하기 때문에 도보로 이곳저곳 구경하며 돌아다니기에는 작은 다운타운과 주변의 숲 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도심생활을 즐기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차 있는 친구들과 도시로 놀러가거나 다른 나라 친구들과 오하이오를 벗어나서 놀며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2019-2학기 수업	1) FUND OF IND AND CONST HYGIENE (Instructor: William Hocevar) 산업위생에 대하여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배웠던 전공 수업 중 가장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수업 방식도 좋았습니다. Ppt로 수업을 하시고 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퀴즈가 매주 있는데 배웠던 것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쓰는 마스크와 측정기 등을 가져오셔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매주 나오는 퀴즈에서 몇 개 뽑아서 중간, 기말고사로 나오고 기말고사도 문제를 거의 알려주시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도 퀴즈처럼 다 객관식 온라인입니다. 다만 수업을 들었던 장소가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design 건물인데 다운타운 방향으로, 학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astway 건물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 추운 날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학교 내에서 제일 예쁜 곳이라 수업을 들으러 갈때마다

	좋았습니다. 학생은 10명 정도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교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산업매니지먼트 쪽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2) BRIDGING CROSS NAT RELAT (Instructor: Eron Memaj) 글로벌빌리지에 사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다른 전공과 겹친다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다른 나라의 관계나 특성에 대해서 배우며 과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수업이 시작하면 먼저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하여 짤막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수업은 대체로 수업내용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의 내용이 각 나라의 예전 특성을 기준으로 한 실험에 바탕을 둬서 현재와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고 봉사활동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하는 공연을 보러 가거나 체험을 하러 간 후 3개의 보고서를 써야 했어서 첫 학기 적응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주 퀴즈와 자기 생각을 쓰는 보고서가 있고 올라온 자료를 읽고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 친구, 또는 유학생들이므로 같은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과 안면도 트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수업자체는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문화축제 같은 것을 맡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중 조를 나눠서 격주 나라소개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간단히 발표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홈커밍이나 한국 소개 등 행사가 있을 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해달라고 이 수업을 듣는 교환학생에게 연락이 갑니다. 퀴즈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나오고 중간, 기말고사도 다 온라인입니다. 과제 제출도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객관식이고 아마 마지막 한문제만 자신의 생각을 쓰는 주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것만 다 마무리하면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은 2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관련 건물인 Moulton hall 옆에 있는 white hall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ppt를 그대로 읽는 식이 많아서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3) INTRO TO ENVIRON HEALTH/SAFETY (Instructor: Sam Rubens) 환경보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룹니다. 퀴즈와 토론은 없고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종이에다가 풉니다. 대신에 매주 주제에 따라서 구글에 기사를 검색하고 요약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내면 점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친절하십니다. 출석체크를 하고 ppt로 수업을 듣습니다. 책은 따로 필요 없고 ppt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스터디 가이드를 주십니다. 무난하게 듣기 좋습니다. Bowman hall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4) PREVENTION CONTROL OF DISEASES (Instructor: Angela DeJulius) 매주 온라인 퀴즈가 있고 과제는 배웠던 것과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타이핑해서 종이를 제출하면 채점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주십니다. 점수에 다 포함되지만 출석은 몇 번 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배우는 양도 많고 처음보는 병명을 다 외워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Ppt로 수업을 나가고 책이 필요합니다. 책에 부가적인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십니다.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간, 기말은 객관식에 단답, 주관식이 섞여 있는데 중간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다시 주시지 않는데 그게 기말시험에도 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전에 스터디 가이드를 주시는데 병명 등이 단답으로만 쫙 써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외우면 됩니다. 온라인 시험이 한번 있었는데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토론은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학생들이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대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마다 발표는 한 번이고 그 기사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섞어서 그 병의 원인과 과정,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찾아서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에도 대비를 조금 해 두면 좋습니다. 출석을 잘 체크하시지 않아서 자신이 발표하는 주가 아닐 때에는 학생들이 대거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Moulton hall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2020-1학기 수업	1) STUDIO HIP HOP I (Instructor: Samuel McIntosh) 힙합댄스를 미국에서 배운다는 것에 흥미로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번정도 빠질 수 있고 출석이 중요합니다. 비디오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가 30~1시간 정도지만 과제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됩니다. 수업은 Cabbage Patch, Bobby Brown, Roof Top등등 기본적인 것을 배운 후 시험 때 프리스타일을 조금 섞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험은 나머지는 다 나가 있고 3명이서 교수님 앞에서 배웠던 춤을 춘 후에 각자 프리 스타일로 20? 30초정도 춤을 춥니다. 중간고사때는 이론을 단답, 주관식이 섞인 것을 종이에 써서 제출합니다. 수업은 performing art 건물에서 들었고 교실 한쪽 면에 크게 거울이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와서 춤연습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기말고사는 한국에서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들으며 시험전에 강의를 녹화한 것을 올려 주시며 시험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프리스타일과 섞어 1분정도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유로우시고 수업때도 학생들이 원하는 데로 춤추고 잘 추지 못하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업들에 비해 다른 나라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수업을 포함하여 다른 수업들은 몇 명 아랍계열 쪽 학생들이나 아시안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웬만해선 저 혼자 아시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 ENVIRON REG AND ASSESSMENT (Instructor: John Krusinski) Ppt를 바탕으로 수업하며 책은 없습니다. 이메일로 ppt를 나눠 주시는데 수업 시작전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느정도 나가고 나면 이메일로 보내주십니다. 얘기 나누고 질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수업 때 편하게 질문하면서 대화합니다. 시험은 알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적으면 되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시면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도록 성적을 잘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자연스럽게 질문하기 좋았고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수업은 고학년이 듣는 수업이라 어드바이저에게 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따로 얘기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고학년이 듣는 수업인만큼 수업 인원은 10명이 채 안됩니다. 학생들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려고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못했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러 나가거나 환경관련해서 정부 쪽과 일하는 분을 초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도 했습니다. 기말때는 두 장 정도 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도 따로 나가지는 않고 ppt를 나눠 주셔서 그것을 보고 각자 공부하고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INTRO TO GLOBAL HEALTH (Instructor: Madhav Bhatta) 전세계 환경보건 쪽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것도 관련하여 나옵니다. 외국인 교수님이라 발음이 살짝 헷갈리지만 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Ppt로 수업을 나가서 책은 없으며 퀴즈가 매주 있는데 올려져 있는 ppt보다 수업 때 ppt에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있었어서 수업 때 사진을 찍어가면서 봤습니다. 퀴즈는 수업내용에 있으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바쁘신지 교수님 대신에 TA가 대신 수업하기도 했고 한번은 조별로 나눠서 짧은 발표를 당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노트북과 태블릿을 제외하고 핸드폰은 다 넣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무조건 출석을 불렀습니다. 매주 퀴즈에다가 과제가 있는데 과제도 내면 점수를 주는 것이고 교수님이 올려 주신 기사를 보거나 WHO 등에서 자료를 찾아서 적어내면 됩니다. 중간, 기말은 온라인으로 보았고 기말고사때는 한국에서 따로 강의 없이 올려 주신 자료로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4) LEGAL ASPECTS HEALTH SVCS MNGT (Instructor: Eric Fink) 주로 환경서비스 관련하여 미국의 의료보험, 메디케어, 보안법, 연방법 등을 배웁니다. 글로 정리된 Ppt가 따로 없고 blackboard에 올라가 있는 5~7장정도 되는 글로 수업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있는 동영상도 올라가 있는데 수업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예습 없이는 수업을 듣기 힘들며 말이 정말 빠르십니다. 토론을 좋아하셔서 돌아가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발표나 중간고사는 없었고 퀴즈가 있는데 퀴즈에 단답형과 주관식이 섞여 있어서 수업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서술형을 길게 쓰기 어렵습니다. 다른 수업은 과제의 양이 많아도 수업을 듣기 힘들지는 않았고 말도 적당히 빠르게 해 주셨는데 이 수업은 말씀을 좀 느리게 해달라 해도 금방 말이 다시 빨라지시기도 하고 책도 없고 Ppt도 따로 없어서 수업 때 미리 예습해 간 것과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알아들어야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오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수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 대신에 취소한 수업은 교수님께서 나이지리아분이라 말투를 알아듣기 힘들어서 취소했었습니다. 기말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인 온라인 시험을 보았고 줌으로 실시간 수업했습니다. blackboard에 어떤 수업들은 공통적으로 동영상 강의와 함께 ppt또는 스크립트가 올라가 있는데 스크립트 그대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라 참고하면 좋습니다. 5) CARDIO KICKBOXING (Instructor: Annette Sarafian) 수업 때 글러브가 필요하며 굳이 사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구비해두신 게 몇 개 있어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출석이 중요하고 줄넘기, 기초체력운동, 볼이나 아령 등을 가지고 하는 운동 등을 다양하게 합니다. 수업시간의 반 이상은 짝을 지어서 킥복싱을 하고 샌드백을 차기도 합니다. 결석을 하면 다시 채울 수 있는데 교수님의 다른 코어운동이나 킥복싱 등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교수님의 하드코어 운동수업때 참여해 보았는데 반 이상의 시간은 복근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운동입니다. 체육관에 계속 다니는 것이 살짝 지겨워졌어서 남들과 같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었기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올려 주신 자료에서 5문제 정도 나와서 종이로 단답, 서술형을 씁니다. 기말때는 온라인으로 시험 봤습니다. 과제로는 1mile 달리기 걸린 시간, 제한시간 내에 팔굽혀 펴기 등 운동을 몇 번 하는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mile을 쉽게 재기 위해서 rec center 2층이나 eastway center앞 운동장을 달리면 됩니다.

	6) INDUSTRIAL SAFETY (Instructor: Ronald Griswold) 산업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책이 필요합니다. 수업 때 진행하는 Ppt양이 많고 ppt를 따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수업때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한단원이 끝나면 단원 끝에 있는 15~25개 정도 되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이 문제들도 시험에 나온다고 하셨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데 외울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서술형으로 25문제가 나왔습니다. 중간고사에 나온 것이 기말고사에도 나온다고 하셨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시험지를 나눠 주시고 답을 불러 주십니다. 수업에 두 번 말없이 빠지셨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랑 2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blackboard로 실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말고사때는 워드로 파일을 보내주고 거기에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여 제한 시간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전, 대면강의 때는 수업이 끝나고 출석체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교수님이라 수업내용을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해주기를 미국은 교수님이 메일에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거나 수업이 미흡하거나 자주 빠질 경우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학장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 ISSS 센터에 일하시는 Molly라는 직원분과 모르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과거에 순천향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한적이 있다고 하셨고 매우 친절하십니다. 학과 관련 advisor는 학기마다 바뀌는데 3학년 이상 들을 수 있는 수업에 참여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메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global village에서 운영하는 communication partner라고 있는데 미국 친구들과 짝지어주고 무료 쿠키랑 음료 마시면서 화요일에 한 시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니면 학교 직원분들과도 연결해 줍니다. 보통 한번 짝지어주면 1년 유지하는데 파트너가 졸업하거나 해서 새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격주마다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Res airway가 있습니다. 발표 전에 kahoot 게임을 하거나 그 나라의 전통 게임을 하기도 하고 발표 시에는 ppt를 이용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문화를 소개하게 됩니다. 한국 발표때는 어쩌다 놀러 온 다른 학교 사람들도 포스터 보고 와서는 얘기하다 가고 했습니다. 주최하는 나라의 음식 2개와 디저트 1개의 레시피를 주면 학교 dining center에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크게 여는 건 homecoming day 라고 학교 student center 강당에서 각자의 테이블에 꾸며 놓은 tri

	folder를 세워놓고 관련 영상도 보여주면서 나라 소개를 합니다.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작은 상품도 주거나 전통 물건을 보여줍니다. 자기나라 옷을 입고 나오고, 스테이지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동아리 댄스팀이 나와서 공연하고 갑니다. 한국을 좋아해주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셔서 참여했는데 부담되면 작년에 다른 사람이 만든 tri folder도 다시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2학기에 전통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나 춤을 잘 하지 못해도 다들 즐기기 위해 하는 축제인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Global village에서 하는 활동 중에는 학기 초에 인터네셔널 학생들을 데리고 다운타운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버블티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Global village 프로그램 공지는 인스타에 뜨고, 넷플릭스로 영화 선택해서 기숙사 라운지에서 무료 피자 먹으면서 보기도 합니다. 또 학교 자체에서는 도서관 지하에서 클럽 파티를 열거나, 또는 rec center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이랑 음료 제공도 해준 적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웬만해서는 무료로 피자나 쿠키를 많이 줍니다. 학교 내에서 drag show도 하고 성에 대해 소통하는 강의도 하며, 단발성으로 몇 십명이 참여하는 좀비게임도 운영합니다. kcc라는 Korean culture club이 있는데 다같이 클리블랜드에 놀러가서 기생충보고 한식당 가서 한식 먹었습니다. 매번 안 나가도 되니까 편하게 가면 됐었습니다. 추석 때 떡이나 전도 먹고 씨름도 합니다. 케이팝이랑 영화에 대해서 퀴즈도 했어요. Isss에서 2월달에는 40분정도 걸리는 쿠야호가 밸리 국립공원 주변의 polar blast라는 곳에서 스키($40)와 튜브($20)를 타러 갔습니다. 학기 초에 student center주변 잔디밭에서 동아리 소개를 크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관심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Flash perk이라는 포인트는 학교에서 flash perk point를 준다는 행사에 찾아가면 몇 천 포인트이상 모일 때 마다 학교 모자나 티셔츠를 줍니다. 학교 티셔츠는 되게 자주 받는데 학교 농구 시합에 보러 가면 티셔츠도 몇 개씩 던져주고 communication partner 참여해도 받을 수 있고 행사를 하면 티셔츠는 무료로 많이 나눠 줍니다. Rec center는 수영, 클라이밍(매주 금요일 무료), 배드민턴, 농구, 스쿼시가 가능한 제일 큰 체육관이고 tri-tower wellness는 2층의 비교적 작은 체육관입니다. 둘 다 런닝머신과 자전거, 요가매트, 많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방학 땐 다 문을 닫습니다. 학생은 대부분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J-1 비자는 학교에서 몇십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어서 학교 마켓이나 식당에서 알바하는 인터네셔널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은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햇빛이 셉니다.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어서 실내는 춥습니다. 할로윈 즈음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11월 초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4월달까지 긴 겨울이 지속됩니다. 날이 맑다가도 비가 오면 며칠 내내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에서 봄 사이쯤 우중충한 날이 많았습니다. 기온은 전체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학교 내 인도는 눈 쌓이면 잘 치워주는데 저는 잔디밭을 많이 가로질러 다녀서 여기서 산 부츠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가끔 너무 추운 날은 휴강도 된다는데 제가 있을 동안은 없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목도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롱패딩은 하나 꼭 챙겨오면 좋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추위를 잘 안타는 거 같고 레깅스를 많이 입고 다녀서 파티 갈 때 빼고는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옷 같은 건 평소 잘 입는 거 빼고 많이 챙겨올 필요 없고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대신에 한인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음식 종류를 챙겨오는 게 낫습니다.
안전	주변이 시골인지라 길거리에 노숙자는 보이지 않고 딱히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켄트가 미국에서 손꼽히게 안전한 학교로 뽑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가로등이 도로에 워낙 없어서 밤이면 엄청 어둡습니다. 친구가 혼자 학교 외곽의 도로 옆 인도를 걷는데 차에 탄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더니 일부러 빵빵거리면서 소리지르고 간 적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밤에는 노란 옷을 입은 세큐리티가 돌아다니면서 건물들을 돌아다닙니다. 학교 내에는 담배랑 술, 마약이 금지입니다. RA들이 밤마다 화장실 돌아다니면서 노크하면 잘 있다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씨씨티비가 있으면 카페에 물건 놔둬도 잘 안 훔쳐간다고 들었고 기숙사 라운지에 노트북 두고 나갔다 와도 괜찮았지만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애크런 그레이하운드 승차장 갔을 때는 노숙자들이 많고 갑자기 영어 할 줄 아냐고 말 걸어서 당황했었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운전면허 필기를 여기서 따면 한국 가서도 쓸 수 있다는데 DMV genie 라는 앱 다운받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대부분 1번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실기는 차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Eastway center의 clark hall에서 반년 살았고 2학기때는 leebrick으로 옮겨서 지냈습니다. Clark은 2인실이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는데 화장실 내부에 샤워실과 세면대, 변기가 한 칸에 다 있는 구조로 문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남들과 쓴다는 것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물비누와 휴지는 계속 리필 됩니다. 방에는 냉난방기와 전자레인지,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방은 한층에서 통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층마다 세탁기 2대와 건조기 2대가 있고 돈은 내지 않습니다. 1층에 키친이 있습니다. 키친이 없는 건물에 사는 친구는 제 건물까지 와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갔습니다. 클락은 한학기에 $3,646을 냈고 겨울 방학이 시작하면 방학동안 매일 $35씩을 받습니다. 첫 학기 시작 때도 해당 날짜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면 돈을 내야합니다. 간혹 새벽에 클락에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ra에게 말하면 해결해줍니다. 리브릭은 1인실이지만 층마다 오픈된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밤에 티비에 게임기를 연결해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리브릭은 트라이타워 2층의 큰 세탁실로 가야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조금 귀찮습니다. 쓰레기는 투명한 재활용 봉지와 검정색의 일반쓰레기로만 구분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구분되므로 그냥 버리면 됩니다.. 택배가 오면 우선 자기 파트 건물로 물건이 배송됩니다. 메일로 우편이 도착했다고 해도 그 담당 센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물건을 못 받습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도착 시간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 다음날 3시 이후로 택배 찾아가라는 이메일이 옵니다. 학교 카드는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클락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카드가 필요하고 이스트웨이 일층 같은 공용공간이나 수업들으러 가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숙사 출입이 불가합니다. 리브릭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카드를 찍어야 층을 누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방에 두고 나오면 임시로 문을 열 수 있는 mobile ID(CBORD)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썼던 방 중에서는 centennial C는 2인실으로 내부 화장실, beall은 1인실로 4명이 화장실을 공유, 같은 층에 키친이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 시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겨울 방학 시작 전에 다른 방으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각 방마다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kent.edu/housing/room-and-board-rates 학교 오기전부터 켄트나 유니버시티 오크스 라는 학교 off campus에 개강 전에 연락해서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계약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러 가는 건 여권과 보증금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프캠퍼스에서 살기 위해 1년 계약을 풀려면 몸이 아파서 기숙사에 못살겠다는 의사에게 받은 서류가 있거나, 파산해서 돈이 부족하다는 등 서류와 함께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데 서류에 적을 것도 많기 때문에 이왕 2인 기숙사에서 살거면 다른 곳보다 싸고 도서관, student center, east way, tri tower rec center와 가까운 클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 Meal plan이라고 학교 flash card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학기 때는 flash block 100, 두번째 학기에는 한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서 flash block 50을 샀습니다. 블루플랜은 하루에 몇번이고 식당에 들어가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제가 산 블록 밀은 한번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1밀씩 차감됩니다. Flash 100을 살 경우 $1,289을 내게 되고 여기에 100 meal, $500의 declining balance, 5개의 guest 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lash 50밀은 $773이며 50 meal, $350 declining balance 이렇게 있습니다. 게스트 밀은 없습니다. 첫 학기에 meal plan을 구매하려 했을 때, 해당 창에서 freshman으로 선택하면 blue plan 이상으로 밖에 옵션이 없었어서 높은 학년으로 선택했더니 block meal 선택이 가능 했었습니다. 다른 인터네셔널 유학생 친구에게 물어보니 학년이 낮아서 blue plan만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학기때는 자동으로 첫 학기 때 했던 밀플랜이 선택되므로 변경하려면 직원에게 메일 보내서 바꿔야 합니다. 밀이 부족하면 메일보내서 밀을 더 사거나 갈때마다 사는 방식으로 일반 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Declining balance는 eastway market, student center hub, rosies, wellness center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돈으로 마켓에 있는 샌드위치나 생필품을 살수 있는데 이스트웨이 마켓의 물건들은 외부 마트보다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게스트 밀은 말그대로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 있습니다. 또한 eastway market이나 prentice market에서 Meal exchange라고 밀 한 개와 스무디 또는 커피를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박스를 쓰고 싶다고 하면 일회용이랑 플라스틱 박스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일회용은 돈을 내야합니다. 플라스틱 박스에 음식을 담고 방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박스를 씻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아무 때나 직원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학교 식당은 뷔페식이며 밀플랜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침은 11시까지 약 $8, 점심은

	4시까지 약 $10, 저녁은 4시 이후부터 약 $12정도 합니다. 금요일에 $5에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밀플랜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이용했습니다. 학교 주변 다운타운에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있고 음식을 해먹고 싶을 때는 주로 애크미나 드럭마트를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다운타운에서 갈 만한 곳은 배달도 가능한 insomnia 쿠키집이 있고, popped라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팝콘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Pacific east라고 말레이시아 음식과 일식을 팝니다. Pho king이라는 베트남 레스토랑도 있고 치킨을 파는 cane's, yummy garden이라는 중국집도 많이 갔습니다. Ming's bubble tea도 자주 갑니다. 제일 가까운 한식집은 서울가든 두메골이라는 곳인데 차로 30분정도 걸립니다. 클리블랜드에 miega Korean barbeque라는 식당도 갔었고 그 아래 아시안 마켓이 크게 있습니다. 이 아시안 마켓에는 불닭소스, 바비큐 소스, 호빵, 한국 과자, 당면 등등 한국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카드를 만들기 전에는 식당 가서 계산을 주로 현금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같이 간 식당에서 친구가 카드로 계산할 때 영수증에 저녁 팁보다 몇 센트 덜 적어줬다고 임의로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은 식당도 있었기도 했고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팁을 덜 줘도 되니까 현금을 자주 썼습니다. 월마트나 애크미에서 자율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낼 수 있으므로 동전 처리하기 좋습니다. 월마트가 애크미보다 좀 쌉니다. 참고로 술 살 때 일행 중에서 한명이라도 만으로 21살 안되면 직접 계산하러 들고 온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도 돌려보냅니다. Brewhouse pub이라고 나이가 안되서 술은 못 마셔도 친구들이랑 들어갈 수 있는 술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안되는 사람만 몇 달러 더 내야 됩니다. 학교 주변 타우너스 우즈 가는 쪽에 과수원이 있는데 기념품으로 가져갈만한 자잘한 물품도 많이 팔고 달달한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교통	학교 내부와 외부를 다니는 parta 순환 버스가 있는데 parta앱이나 ksu mobile앱을 다운받아서 bus tracker를 보고 다니면 됩니다. (평일만 운행하는 월마트 가는 35번 버스 탈 때는 버스 트래커에 버스가 잡히지 않아도 버스 스케줄에 따라 기다리고 있으면 곧 옵니다. Bus tracker가 먼 거리에서 오는 버스는 잘 못 잡는 거 같습니다) Parta express 버스는 학교에서 arkon 그레이하운드 승차장과, akron 승차장에서 cleveland의 전철역까지 각각 약 $1(?)달러를 내고 갈수 있습니다. 일반 순환 버스로는 walmart, target, kohls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항까지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가면 거의 $50이 넘게 듭니다. 8월 학기 시작때는 $20을 내면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하루 세번 운행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알아서 와야

	하므로 몸이 힘들지 않고 돈을 아끼고 싶으면 express 버스가 낫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를 다 깔고 가격을 비교하며 타는 게 좋아요. 학교 내에서 빌려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일정 기간동안 돈을 내고 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위치가 매번 바뀌는 걸로 알아서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학교 오티 일정이 나오면 그때 구매하시길. (아래에도 썼지만 지정날짜보다 일찍 오면 기숙사비로 매일 $35씩을 내야합니다. 다른 학교는 반값이라고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까웠던 부분)	
Fees	Intern'l Student Activity Fee $20 (매학기) Career Service Fee $73.44 (매학기) Arts Fee $15 (매학기) portion of housing $111.56 (한번)	켄트에 낼 fee 제외한 학비는 순천향대학교에 내면 됨
보험료	International Student Health Insurance 1학기 $946 International Student Health Insurance 2학기 $1,349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험.	
숙소	Traditional Housing-Fall 1학기 Clark hall: $3,646 Traditional Housing-Spring 1학기 Clark hall $3,646 중간에 LEEBRICK Single 이동: $4,253	Clark hall + 첫 학기 오티 시작 전 하루에 $35씩 + 겨울 방학 때 봄학기 시작 전 하루 $35씩
식비	Flash 100 meal $1,289 Flash 50 meal $773	밀플랜+외부식당(기본$10 넘게)+마트에서 장
교통비	공항-학교 우버 약$50	학교내부를 다니는 버스는 무료. 학교 버스로 애크론 또는 클리블랜드로 가려면 몇 달러의

		현금 필요
책값	아마존에서 책 렌탈 $12~$25	렌탈 이용 시 배송비 0원이지만 배송을 위한 프린트비 몇 센트
기타1	Mint 유심 데이터 구매 8GB $105 (할인 시) 3개월 +3개월 3GB $45	데이터 새로 구매 시 기존 연락처 계속 사용하는 것 보다 새로운 번호로 유심을 사는 것이 더 쌌음. 체험용으로 일주일용 유심을 하나 더 줌.
기타2	Fall break 덴버 여행 + winter break 서부, 동부 여행 + spring break 올랜도 여행	여행가는 인원수와 식사, 숙소, 교통편 등에 따라 상이.
합계	(학교 fee+ meal plan + housing) 1학기 $4,500.44 2학기 $5,876.44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학교 오자마자 기숙사 카드를 받기 위해 2층짜리 건물인 tri tower를 찾으면 됩니다. 오티 일정이 이틀정도 됩니다. 베개랑 이불은 하루에 $5에 빌리거나 $35에 학교 캠퍼스 내에서 살수 있다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찍 도착한 편이라 직원분께서 마트에 데려다 주셔서 월마트에서 twin XL로 이불 세트 하나 샀습니다. 초반에 차 있는 분께 부탁해서 월마트에서 싼 이불, 세제 같은 거 사오면 좋구요. 애크미 도로 건너 반대편에 Gavy라고 clearance 섹션 가면 요리 도구 같은 거 싸게 살수 있습니다. 옆쪽에 원달라샵도 있고 여기서도 요리도구 살수 있습니다. 애크미에 김치와 숙주를 팝니다. H mart 온라인에서 $50 달러 이상 사면 배송비 무료입니다. 다만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만 몇 십 달러 이상 사야 배송을 해줍니다. 학교 뷔페는 따뜻한 국이라고는 가끔 나오는 스튜나 스프밖에 없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도 없었으므로 찌개가 엄청 먹고 싶을 때가 많아서 나중에는 밀을 적게 사서 아예 한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알러지가 있다면 zyrtec은 학교내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드럭마트와 애크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약을 팝니다. 공책 많이 필요 없고 노트북이 무거워서 나중엔 태블릿을 잘 들고 다녔습니다. 비도 엄청 자주 오니까 작은 우산 필요합니다. 학교 메일은 하루에 6통씩 넘게 자주 오니까 매일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 blackboard라고 여기에서 수업 실라버스도 보고 과제도 올리고 퀴즈 풀고 합니다. 초반에 듣고 싶은 수업 오티 다 참석했다가 정정기간 전에 드랍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학교의 수업에서 듣기 힘든 필라테스나 쥬얼리 제작, 코어운동, 셀프 디펜스 등 수업도 많으니까 다양하게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도서관 1층 우측편에 컴퓨터 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편을 보면 학교 카드에 $1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돈 넣고, 컴퓨터로 파일 인쇄 누르고, 프린트기 옆면에 카드 긁어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 프린트시 $0.07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온 상태로 우측편으로 쭉 돌아가면 UPS박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용해서 아마존에 책 렌탈 한 걸 반납하거나 잘못 시킨 물건 반송시켰어요. 아마존에 반송시킬 때 반송 바코드를 프린트해서 물건 겉면에 붙이고 ups 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대부분 물건이 잘 갔는데 한번 아예 책이 렌탈 반납한 거 확인이 안된 적은 있어요. 코로나로 학교가 전부 닫았을 때에는 학교 주변의 ups store에 가서 프린트하고 반납했습니다. 프린트할 때 쓰는 컴퓨터도 비용 내야하고 10분 넘게 쓰면 돈이 추가됩니다. 아마존에 prime 서비스는 학생으로 무료체험 하면 6개월동안 무료로 빠른 배송 가능합니다.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직원과 실시간 채팅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Flash card 만들 때는 student center 4층으로 가면 됩니다. flash카드가 망가지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잃어버리면 한 $25정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student center 1층에 있는 pnc bank에서 미국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카드 만드는 건 무료이고 여권과 flash card를 가져가면 됩니다. 한번은 돈을 수표로 돌려받을 일이 있었는데 수표는 이름이 써진 당사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pnc카드를 만든 후에 학교 스튜던트센터 1층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학교 flashline에 들어가려면 authenticator 라고 인증을 해야 됐습니다. 꽤 여러 번 했었어서 인증 방법을 핸드폰 번호로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학교 도착 후 며칠 후에 민트 유심을 배송시켜서 썼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는 인터네셔널 학생들만 오니까 건물을 걸어 다니면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t-mobile이나 at&t를 썼는데 mint에 비해선 비쌌습니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게 잘 터졌습니다. 학교에 은근 와이파이가 많아서 굳이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지는 않았는데 연결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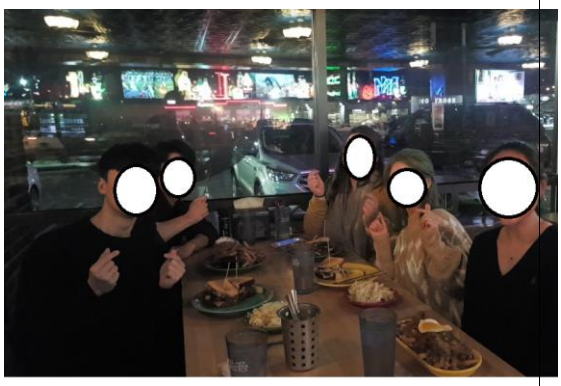
Thanksgiving때 학교 식당이 문을 닫으므로 친구 집에 초대되면 좋습니다. 학교 winter break 때도 학교 식당과 체육관이 문을 닫고 스타벅스만 후반에 엽니다. 한달 간의 겨울 방학동안 최대한 오래 여행을 가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arm track 기차를 타고 시카고도 다니기도 했는데 싼 편이 아니고 시간이 띄엄띄엄 있는 걸로 알아서 시간대비 비행기가 편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다른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말하는 게 엄청 빠르기도 하고 매주마다 수업전에 읽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후로는 영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었기에 이왕 미국에 온 거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3~4일정도 시간이 될 때는 가까운 콜롬버스나 피츠버그, 시카고, 덴버, 올랜도가 여행하기 괜찮고 겨울방학때는 어차피 친구들도 다 집에 가 있고 학교에 남아있어도 기숙사비가 의미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서부, 동부로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오는 게 추억 남기기 좋았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돈이라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업과 학교내의 알바를 병행하며 여행비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돌아다니겠냐는 생각도 있었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몸을 불편하게 하여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초대되는 것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너무 한국인들끼리 붙어있는 것만 아니면 영어는 계속 쓰게 되고 급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스피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익힌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게 편할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스피킹이 힘들 경우에는 주변에 아시안 친구들로 입을 먼저 틀 수 있고, 다른 해외에서 온 학생들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받으면서 연락하는 친구가 서서히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고, 영어를 잘 하던 편이 아니라 막상 도착해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며 영어를 훨씬 잘하는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많아서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외국인이니까 더 배우면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부족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였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겪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고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분은 더 다운되므로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와 바깥도 많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막상 학교 주변을 나와서 할 것이 없더라도 주변에 산으로 산책을 나간다거나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는 것도 소소하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는 켄트로 오는 교환학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팁이라도 공유하고 싶어서 줄줄이 써내려갔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꽤 있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yyang46@kent.edu 로 연락주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들과 좀비게임		홈커밍 참여
Res airway 참여하여 한국문화 설명		친구 집에 초대되어 쿠키 만들기
		
교환학생 가는 친구와 마지막 식사		클라이밍 체험